

# 광주·전남 지자체 탄소중립 나서다

### 광주 서구, 우수사례 환경부장관상 북구,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선정 여수시, 화학물질안전원상 수상

올해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로부터 환경관리를 잘하는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고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수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나서 마을 공동체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화학사고 등에 미리 대비 한다면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계승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광주시 서구는 '탄소중립 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우수사례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2022 지자체 탄소중립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주민 대상 실천 프로그램을 확산하거나 산업체와 협력 등을 추진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국 7개 지자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시 서구가 유일하고 서술시, 부산시, 경기도, 대전시 서구,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다. 서구는 '감(減)탄 서구에 감(感)탄해' 정책을 통해 매월 테마를 정해 맞춤형 탄소 줄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이락'과 협력해 기후위기 챌린지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탄소중립 실천 이미지 전시, 플로깅 등 기후행동 참여 행사, 구 마스코트 '해운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서구는 도시형 배출 특성을 반영해 주민 참여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구도 환경부의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작년의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 지자체 2곳, 기초 지자체 25곳을 우수 지자체로 뽑았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선정됐고,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광주시 북구를 포함해 울산시 동구, 경북 군위군, 경남 밀양시, 부산시 강서구, 부산시 사상구 등이 우수지자체가 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점검률, 적발률, 단속 공무원 교육, 홍보실적 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점검대상인 대기·수질 배출사업장(5만 4530곳)을 대상으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로 나눠 점검률과 위반(적발)율, 오염도 검사율 등 8개 지표를 평가했다.

우수지자체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이 전국 평균 91%로 전년(61.5%)에 비해 약 30%p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이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수시도 환경부가 개최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됐으며, 9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참가했다.

여수시를 포함해 안양시, 청주시, 수원시, 군산시, 구미시 등 6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과 화학물질안전원상을 수여했다.

여수시는 환경안전 상황을 한눈에 관측할 수 있는 여수산단 환경모니터링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성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는 사업장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경진대회를 발판으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환경운동연합, 새등지서 새출발 광주환경운동연합이 30여 년간의 더부살이를 끝내고 지난달 29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본사무소를 겸한 환경센터의 문을 열고 후원의 날 행사와 집들이를 진행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 '2023년 노인 일자리' 참여 희망자 28일까지 모집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28일까지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2004년부터 시행중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이다. 만 60세 이상은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사업단에 지원이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은 공익활동형에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을 바탕으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합격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내년 1월 초 개별 통보된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광주선 주변 거주 시민 60% 폐선 원해

### 푸른길더하기시민회의 포럼 폐선 통한 푸른길 활용 제안

광주선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 60%가 광주선 폐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선 푸른길더하기시민회의'는 최근 '광주선 철도변 거주 주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철도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공개하고 광주선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3주간 광주선(광주역-광주송정역) 철도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문항은 총 30문항으로 주거공간 만족도, 광주역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응답자의 약 40%는 '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설문결과 주민들의 주거공간 만족도는 대부분 평균을 넘지 못했다.

주거 환경, 공원녹지, 생활 인프라, 생활 안전, 문화생활, 교육 등 총 6개의 항목 모두 평균 2.5점(5점 만점)을 넘지 못하였으며 문화생활 만족도는 약 2.1점을 기록해 가장 불만족스러운 항목으로 나타났다. 철길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위험하다는 기타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광주선 철도도 생활이 불편하다'고 답한 주민도 56%에 달했다. 주 이유로는 약 36%가 '단절로 인한 이동과 보행의 불편함'을 꼽았다.

그 외에도 기차 운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 방음벽으로 인한 경관 피해, 철도변 지역의 쓰레기 투



광주선푸른길더하기시민회의가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선 푸른길 더하기 포럼'을 열고 '광주선 철도변 거주 주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선푸른길더하기 시민회의 제공>

기, 대기 및 대재 환경오염, 우범지대 등이 모두 평균 2.5점을 넘기지 못하였다.

광주역과 광주선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 57%는 광주역과 광주선 폐지 계획을 모른다고 답했고, 트램 활용 계획도 주민들의 67%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철도변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 광주역·광주선 폐선에 동의하며, 녹지공간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철도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이용하기보다, 조기 폐지해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철도 푸른길 공존 방안과 폐선을 통한 푸른길 활용 등 제안을 했다.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은 경전선 순천구간 지하화 요구 사례를 소개 하면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남구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따뜻한 관심·나눔 실천

광주시 남구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현장 모금 행사를 열고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독려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남구는 지난 6일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후원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남구민 나눔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고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통해 남구 주민들에게 연말 집중 모금활동을 알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기부한 남구 공직자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인·

단체·기업 기부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나눔의 날을 맞아 현장 혹은 성금 전달의 방식으로 모인 기부액은 총 2600만원으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된다.

매년 연말에 개최하고 있는 나눔 캠페인은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주변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있다.

캠페인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기부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신청서를 제출한 뒤 남구 연합 모금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북구 '인권주간 행사' ...토크콘서트, 작품·도서 전시

광주시 북구가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주민들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을 높이는 '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북구는 지난 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행복 어울림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을 기념해 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수상작 30여 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권도서가 함께 전시됐다. 또 인권 활동가의 사회로 열리는 토크콘서트가 열려 명예인권위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참여해 인권 보호와 실천 경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인권정책 추진 기록 영상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행사장에는 그림, 이야기, 표어 등 인권작품 공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